

다른 복음들과 그리스도의 참복음 -복음으로 여는 갈라디아서-

출애굽기 20:3-6, 갈라디아서 1:6-7

정윤돈 목사님

* **출20:3-6**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나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갈1:6-7**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을 때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불가능한 영육 간의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의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나의 가정과 가문과 산업, 그리고 땅끝복음화를 위하여 특별한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갈등하고 변민하며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시간표에 맞게 주신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고 굳게 붙잡고 도전하여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성취의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가끔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수백억의 돈을 벌며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스타들이 등장한다. 최근 영상을 보니 지드래곤이라는 가수가 나왔다. 그가 부른 음악이나 옷차림은 내 취향과는 거리가 멀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패션아이콘이라 부르며 열광하고, 그는 대통령과 왕 앞에서 도 당당히 공연을 하는 엄청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1년에 7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어마어마한 부와 인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내면은 너무나 불행하고 궁핍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사탄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참된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또 어떤 유명하고 아름다운 탤런트의 간증도 보았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난이 너무 싫어서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다. 결국 그녀는 원하던 대로 유명한 배우가 되어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그 끝에 찾아온 것은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궁핍함뿐이었다. 결국 그 한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있드리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우리는 이 미 '그리스도의 완전성-완전한 복음, 예배의 완전성, 기도의 완전성'을 소유하고 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온전히 깨닫고, 죽어가는 세상 현장을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겠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마라. 그리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른 채, 과학과 철학과 지식으로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하다. 복음편지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를 펴놓고 불신자에게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 행복한데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자기 불행하다는 걸 깨닫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나중에 깊이 깨달았다. 차라리 삶의 고통과 질병, 가난, 귀신들림으로 "나는 죽고 싶다. 내 인생은 왜 이리 불행한가"라고 절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돈과 건강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상태인 것이다. 지금 세상은 정치, 이념, 세대, 지역으로 너무나 극심하게 씨름하고 있다. 끊임없이 갈등하며 서로가 옳다고 대모를 하지만 그 어디에도 참된 인생의 해답은 없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릎 꿇고 애쓰는 열정은 대단하지만 권력은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이다. 김종필 전 총재의 "정치는 허업(虛業)이다"라는 고백처럼 푸틴이나 세계의 강력한 지도자들도 세상 기준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세상에 전쟁과 고통의 문제만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오직 복음만이 개인, 가정, 국가, 정치, 경제,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경제, 문화, K-POP, IT 등 여러 분야에서 이토록 높이시고 매력적인 나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패권 국가들이 하지 못하는 일, 바로 복음으로 전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위대한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삼아 전 세계를 살릴 선교의 도구로 부르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절대언약을 버리고 무속, 우상숭배, 율법주의에 빠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산 결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포로와 속국, 유리방향을 민족으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통스러울까?" 그 근본원인을 깊이 파고 들면 결국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이기심'때문이다. 나, 내 돈, 내 성공, 내 자식만을 챙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결국 우상이 되어 내 삶을 파멸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기심과 시기, 질투를 버리고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행복이 회복된다.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크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살리시고 이 지구를 움직이신다" 이 엄청난 영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굳게 가지라. 내가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서 남을 헐뜯거나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유치한 짓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 조선시대의 세종대왕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물질적 문명과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온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임을 믿어 의심치 말라.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은 다 버려라. 돈중심, 나중심, 게임중심, 아파드중심, 세상의 성공중심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틀린 것, 망할 것, 다른 복음에 불과하다. 참된 복음은 끝까지 축원한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라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처럼, 내 보잘 것 없는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참으로 바르게 하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저 성도는 대체 무슨 큰 복을 받으려고 저토록 예배의 완전성을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신앙은 담임목사님을 감동시킬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모님과 선생님이 감동할 정도의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한다. 늘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반드시 복을 사모하더라'며 마음에 깊이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야곱을 보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꾸고 고백했을 때, 육신적인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 야곱은 그 고백 속의 참된 믿음에 보았기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보이면,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는 그 성도를 마음에 깊이 담고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저 성도에게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사역을 하며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응답을 부어주시는 것을 생생히 목격했다. 세상적인 나의 노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좋겠지만 인간적인 노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참된 응답을 누리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1. 다른 복음들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큰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첫째로 갈라디아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로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오늘날 선천적, 후천적 같은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강압적이고 협박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예배와 훈련을 강요하며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강압이 아니다. 억지로 끌려 다니는 신앙은 반드시 한계가 오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하신 놀라운 해방과 자유 안에서 억지가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 여러분이 정말로 강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말라. 부모인 나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말씀성취의 증인'이 되라. 어느 장로님이 현장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임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다.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인데 모든 것이 말씀성취로 연결된다. 우리가 지교회와 하고 미션홀을 운영하며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담임목사를 사자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번 주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물이 이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앞뒤 겹 것 없이 당연하게 말해 보라. 그야 참사랑교회에 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억지로 강제로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다. 말씀이 성취되고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 교회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며, 성경을 읽고 훈련받는 것조차 사실 강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셔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할 수도 어떤 길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라.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자원'이라는 영적 자부심을 주신다. 교회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성도가 갇혀도 해도, 시험에 들어도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 술담배를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로 위장암이나 간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설교준비, 교회부흥, 경제적 어려움 등 모든 것이 담임목사의 스트레스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완전성, 복음의 완전성이 있다. 복신앙의 생각이 들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 앞에 있드리야 한다. 이 예배시간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방방은 깊은 기도와 호흡이다. 단순히 육신적인 호흡을 넘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된 그 영적인 호흡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모든 세포와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지혜와 머리가 300배 이상 좋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의 완전성을 바라보고, 그 깊은 호흡과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다.

2) 어리석게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성도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는 앞에 밝히 보이어주는 누가 너희를 피다냐"라고 강하게 책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성도들이 작은 자존심이나 감정문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쉽게 불평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세상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갑부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다. 예수님도 백부장을 두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마8:10)"라고 하셨다. 여러분의 답인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감동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고 견디고 참을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웃을까?"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인도 받아야 한다. 그런 분들이 많다. 입장, 상황,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을 보면 인상을 찡그리며 힘들어야 하는데 얼 굴이 밝게 살고 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다. 이 행복과 믿음을 누리 는 모든 성도가 되길 축원한다.

3) 성도들을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참복음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원니스) 만든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인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경고하듯, 교회를 철저히 분열시킨다. 내 편이 없다고 외로워하며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라. 예수님 한 분만이 내 편이시면 충분하다. 세상에 사람 살리고 전도해야 할 현상이 넘쳐나 는데, 언제 사람들과 어울려 분쟁하고 남을 헐뜯는 헛된 일에 에너지와 낭비할 시 간이 있단 말인가. 이번 아르메니아 선교캠프 두교도 포럼 중에 완전한 성령인도와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포럼 중에 확인했다. 더불어 우리가 할 일이나 응 답받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미션, 오직-유일성-창조주를 생각 안 하고 나가 놀 것, 먹을 것 이것만 생각하고 돈 걱 정, 다른 걱정들만 하니 많은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것이다. 전문화-세계화-복음 화 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한다.

4) 율법주의의 한계와 모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바울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했다. 율법 으로는 구원받으려 한다던 613가지 율법 중에 단 한 가지의 율법도 어그러지는 안 된 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는 예수님 의 산상수훈 기준을 대입하면 우리 중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다 함을 얻을 육 체는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끔찍한 죄인이다. 타락한 우상숭배 자일 뿐이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복음 대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 가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 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전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중 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2. 그리스도의 참복음이란 무엇인가?

1)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게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바 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특 별한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역사상 가장 완 벽하게 정리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며, 이 바울의 참복음이 초대 교부들과 종교개혁 자 루터와 칼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거쳐 오늘날 우리 대한예수교장 로회의 뿌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신약시대 선지자와 사역자를 세워 말씀을 주신 다.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메시지를 철저히 언약으 로 붙잡고 헌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 강력한 말씀을 주 셴고 그 해를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고백하는 '말씀성취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

2)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론의 핵심요절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 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 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 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 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자기의 죄와 죽음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심지어 내 가문에 3, 4대까지 내려오는 끔찍한 영 적 대물림의 저주까지 완벽하게 도모하셨다. 최근 우리 성도 중에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무속의 신내림 문제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찾아온 분이 있었다. 이 지독한 가문의 저주는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풀어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완전히 박살 낼 수 있다.

3)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흔히 "내 고집, 내 성격,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그 앞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세상의 법에서도 범죄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 로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그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 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지옥으로 끌고 갈 권한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2)" 사형수도 대통령 사면하고 복권시키면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 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고 복권에 주셨으니 우리는 율법의 무서운 심판에서 완전치 해방된 자유인이다.

4)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 님을 믿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한다. "아브람 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15:6)"라고 말씀하셨 다. 십계명과 율법, 할례제도가 모세를 통해 생겨나기 수백 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 함조차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5)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 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배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한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을 향해 다정하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우리가 영접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 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가 은혜로 임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3.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성령의 열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욕망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는 뜻 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1)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삶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다만 우리 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고 고백하며,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타인을 긍휼 히 여기고 구제하며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나만 아는 극단적인 자기 주의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자 할 수 없다.

2)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 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는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 을 내어주는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3) 참된 권면과 훈계를 기꺼이 수용하는 삶 갈라디아서 4장 16절은 "그러나 내 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고 묻는다. 목회자가 영적인 사랑 으로 올바른 훈계와 권면을 해도 자존심이 상한다면 도망가고 상처받았으며 빠치 는 어린이가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기준인 말씀 앞에 내 삶을 맞 추고 살길 바란다.

4) 영혼을 향한 해산의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은 "나의 자녀들이 너 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 니"라고 고백했다. 한 영혼이 복음을 깨닫고 온전히 거듭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눈물로 훈련하고 기다려주는 해산 의 영적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5) 자유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데 사용함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끄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자유를 결코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 기는 데 사용하라고 경고한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5:14-15)"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서로 물고 뜯고 비단하다가 피차 멸망하 고 만다.

6) 육체의 헛된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9절은 율법, 우상숭배, 시기, 분열, 이단, 술 취함 같은 육체의 썩어질 일들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 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 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 곧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용서 함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롬5:22-23)"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역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맺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가? 먼저 뿌리, 즉 근본이 치유되어야 한다. 근본치유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해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다.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 조금 부러진 것 같아도 뿌리만 튼 든다면 나중에야 파랗고 푸르게 다시 자라나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 반대로 겉모습 은 화려하고 좋아보여도 뿌리가 약하면 인생이 시험이 들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뿌리째 뽑혀버리고 만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5:26)"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고 투 기하지 말아야 한다. 때로 잘못하면 여기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걸어버리는 어리 석음을 범할 수 있다.

7) 범죄한 형제를 온유함으로 바로잡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형제들이 사람 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죄 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한다. 죄 와 윤리적, 도덕적 잘못은 분명히 잘못만 것이지만 정죄만 하기 보다는 온유한 심 령으로 사랑하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 자신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 을 기억하며 그 사람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8)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짐 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바로 '서로 사랑'을 의미한다. 교회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책임이 아니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라며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9)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함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0절에 "가르침 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 고 말씀하셨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이 아닌 오직 참된 복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말씀들을 완벽하게 따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완철함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고 복음의 완전성을 날마다 바라보길 바란다. 그 완전함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길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 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 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어가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를 이루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